

건설현장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작년 제·개정된 137개 철도설계 적용 여부 확인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65개의 주요 철도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지난해 제·개정된 137개 철도설계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된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개정된 철도설계 기준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변경된 기준 적용 시 애로사항을 청취·수집하고 이를 기준에 재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본부는 고품질의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 철도건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137개의 설계기준을 제·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과실계된 승강장 여유길이 축소(10~5m), 정거장구간 분기기 형식(가동분기기-탄성분기기) 변경, 터널개착부 방수방법(시트방수-아스팔트 방수) 변경, 터널 내공단면 최적화(97㎡-89.5㎡) ▲역사 내 먼지 등 자연환기를 위한 돔(Dome) 형식의 흡지붕 설치, 철도 이용객의 동선 최소화를 위한 대합실과 승강장 배치, 이용객 수를 감안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 변경 ▲유사기능을 하는 시스템분야 건물 통합으로 규모 축소, 신호/통신 분야 전원실 및 축전지 통합으로 최적화 등이고, 제·개정된 설계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건설기준'에 접속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건설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철도현장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즉시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철도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년도 창의혁신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발간

- 예산절감 통해 철도 내실 강화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해 수익창출 및 예산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1조205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12년도 창의혁신 예산절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공사손해보험 발주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공단의 공사손해보험 가입 계약방식 변경을 통해 72억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보험사 선정의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영동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 사업발굴, 건설분야 침목 재활용 확대 사례 등이 수익창출 및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집은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자체개발 등을 통한 지출예산 절감 및 전신주 적용로 부과방법 개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 우수사례 ▲창의혁신과제 수행(70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예산절감 우수사례 ▲폐자갈 재활용처리 방안 개선 등 현장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우수사례 등 총 54개의 사례로 구성됐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공단 임직원의 뼈를 깎는 재무구조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2013년에도 비경제적 설계요인 발굴,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절감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철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케도용 고속분기기 구매 발주

- 선로전환기 포함 일괄 공급계약으로 추진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콘크리트케도용 고속분기기 구매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기기는 선로가 갈리는 곳에서 다른 선로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선로전환장치로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케도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이번에 구매하는 콘크리트 케도용 고속분기기는 총 28틀(약 196억원)이며 공주역에 13틀, 정읍역에 15틀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고속분기기와 선로전환기의 제작사, 납품회사 및 시공사가 각각 달라 하자발생시 원인규명 및 조치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본부는 이번 고속분기기와 선로전환기 일괄 계약으로 체계적인 계약·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고속분기기 소요시기 및 납품기간을 감안해 계약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법무교육 시행

- 지역본부까지 확대 시행 예정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19일 본사에서 관련 부서와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식·정보·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건설에서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이 활발한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단 직원들이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요령을 포함했으며 효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 지역본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4월부터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우려 외도는 다양한 법률 상식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법무지식, 준법익의 함양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속철도용 무선 안테나 시공방법 개선

-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6억원 예산절감 기대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고속철도 터널입구 선로변에 설치되는 열차무선시스템의 안테나를 터널 입구 상부에 직접 설치토록 시공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열차무선시스템은 열차운전과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간 또는 열차와 지상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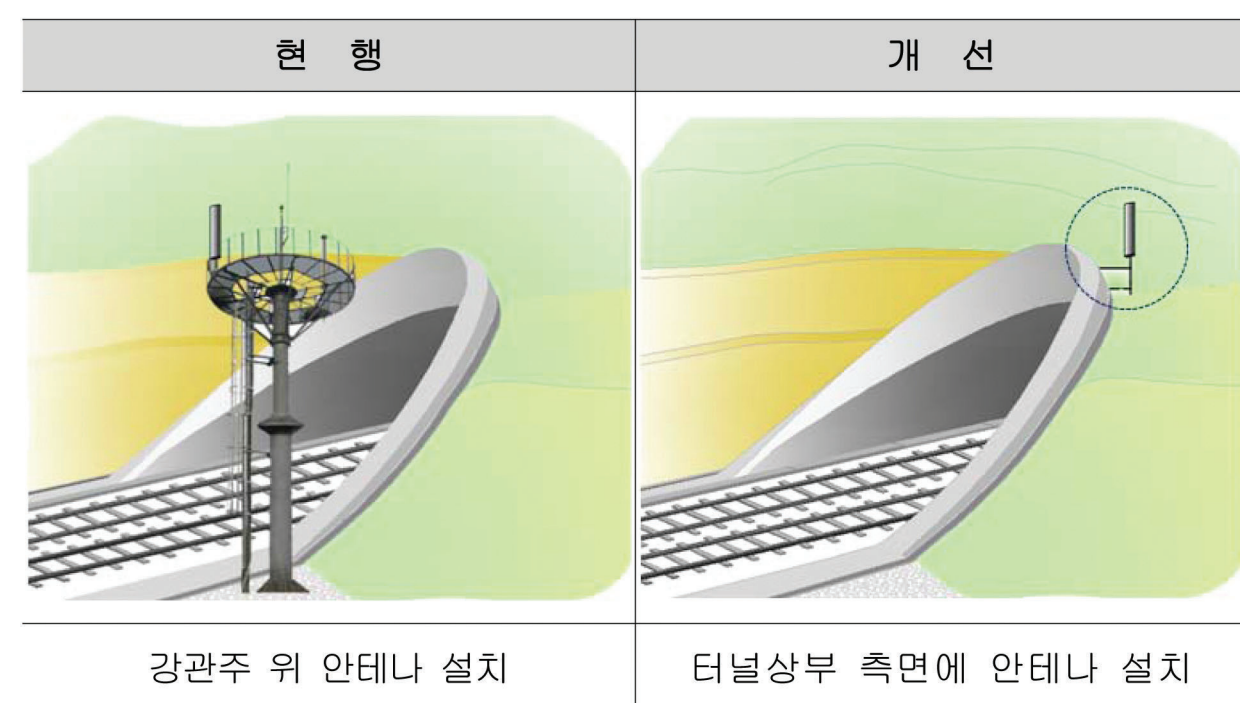
이와 함께 본부는 안테나 높이도 10m에서 4m로 줄여 공사비 6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설치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정보통신처장은 "관행적인 시공방법에서 벗어나 발생의 전환으로 예산절감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올린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과잉시설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예산 절감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참고 열차무선 안테나 시공방법 비교

<개요>

○철도 터널 입·출구 선로변 10미터 구조물인 강관주를 건립하고 그 위에 안테나 설치를 터널 상부 측면에 폴(Pole) 안테나로 개선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고소작업이 없어 시공 및 유지보수 시 안전 확보
- (사업비 절감) 594백만원(33백만원 × 18기)
 - 1개소 당 절감비용(33백만원) - 폴(17백만원)
 - 대상수량(18기) :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15기),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1기)·대구도심(2기)
- (설치시간 단축) 1개소 당 20일(강관주 설치 21일·폴 설치 1일)

건설현장 직접감독 확대 시행

- '13년 9개(노반·건축) 시공현장에서 143억원 사업비 절감-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철도건설 시 노반과 건축 시공현장 9개소에 공단의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감독 제도'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현장에 이 제도를 적용해 4개 현장은 완료, 10개 현장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320억원을 절감했고 올해 9개 현장을 추가해 143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현장에 상주 근무하며 상시 관리 감독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성을 배양해 해외진출 시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할 노후도 축적 할 수 있다.

본부 관계자는 "향후 신규로 시작하는 모든 철도건설 공사에 직접감독 선정기준을 적용해 계속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케도설계 직접 수행해 예산절감

- 5억3000만원 사업비 줄여 ...울산 신항 인입철도사업 등에 확대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중앙선 원주~제천간 건설공사 중 서원주~남원주간 케도설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단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 약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본부는 케도설계를 용역과 계약을 통해 수행했으나 케도분야 직원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합리적 설계를 표방하고 있다.

본부는 이번 중앙선 서원주~남원주간 직접설계를 시작으로 케도설계 기술력 향상 및 사업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직접설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케도설계 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했고 올해는 케도설계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직접 설계 시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넓고 오래된 철도시설 개량 위해 2732억원 투자

- 올 연말까지 추진...철도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등 위해-

시설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과 철도주변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33억이 증가한 2732억원을 투자해 넓고 오래된 철도시설을 개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일반·광역철도의 노후 시설개량 1637억원 ▲스크린도어 및 고속철도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설비 680억원 ▲산사태 방지시설과 옹벽설치 등 재해예방 325억원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90억원을 투입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돼 안전에 취약한 철도시설물을 꾸준히 개량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